

불자 세상보기



정재영
병영인권연대대표

10년도 더 된 일이다. 12월 추운 겨울에 입대한 병사가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됐다. 아픈 곳 하나 없고, 대학생 활 또한 나무랄 것이 없었던 건강한 20대 대한민국 청년이었다.

같은 처지의 다른 이등병들과 다르지 않았을 그 병사가 자대에 배치되어 불과 보름도 되기 전, 아들의 부대에서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이 죽으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중태라는 것이다. 당황한 아버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암 말기선고를 받아 놓은 채 병상에서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던 어머니는 혼절하고 말았다.

군에서의 사고원인인란 것은 참으로 단순하고 명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아만 하는 어마어마한 이유들이 △염세주의 △가정환경 △애인과의 이별 △군 생활에 대한 염증 등 항상 네 가지이기 때문이다.

사고 병사의 경우 군 당국이 알아낸 원인은 '가정환경'이었다. 어머니가 중

병을 앓고 있어 이를 비판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했다는 것이다. 병사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아버지의 진술은 당연히 묵살되었고,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애태게 자식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아버지의 걱정이 하늘에 닿았는지, 온몸의 뼈가 죄다 부러지기는 했지만 다행히 목숨만은 건진 그 병사가 깨어나는 기적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 했을 때, 그간 당국에서 주장하고 발표했던 대부분의 원인들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구타와 가혹행위, 집단따돌림 등, 이른바 지금은 없어졌다는 내부부조리는 물론이고, 그 밖의 다른 부대내적 요인들이 있었던 것이다.

두어 달 시간이 지나고, 해당 병사의 생명이 지장은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될 즈음, 필자의 휴대전화로 어느 젊은이가 나왔다. 망설이며 힘들게 말을 시작할 수 화기 너머의 젊은이는 온몸의 뼈가 죄다 부러진 채 죽어살아난 병사의 형이었고, 며칠 전 전방에서 사망한 어느 병사와 같은 중태에 근무했던 소대장이기도 했다. 락업띠엄 끊어지지 않고 거듭되는 그

의 말은 "꼭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였다. 오죽하면 현역군인신분으로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했을까. 그렇게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렵게 전화해 온 그에게, 나는 결국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야말로 죽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생긴 한 젊은이가 전화기 저편에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십년도 더 지난 이 참담한 기억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되풀이된다. 선임병들과 심지어는 간부까지 합세한 집단폭행 을 당한 끝에 맞아죽는 것으로 비참히 생을 마감한 윤 일병은 물론이고, 최근 에도 식물인간상태에서 수 년만에 깨어난 병사가 군수사기관의 발표와 달리 선임병들의 집단폭행으로 인한 사고였음을 증언하고 있고, 수년전 철원서 목매 숨진 여군 심모 중위의 경우도 그런 일 은 없었다던 군의 주장과 달리 대대장의 성추행이 원이었음이 재조사를 통해 일부 밝혀졌다.

변화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의 비난여론을 의식해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급조된 무슨 위원회가 촉박한 일정으로 쏟아내는 번지수가 한참 다른 대책들도 백약이 무효다.

영내에서 발생하는 장병 간 구타와 가혹 행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발생하고 지속되어지는지를 정확히 모르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25가지의 대책을 짜내어 국회에 보고했다한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대안과 개선안이 될 수 있겠는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거창한 활동이 아니라도 우리 군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 문제는 알면서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나 개선할 의지도 행동도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인권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덕목이라는 것을 지휘관들이 먼저 인식해야 한다. 합리적 비판과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며 내부의 자정기능이 잘 작동하는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해야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군대가 전쟁에 이겨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지켜낸 사례는 동서고금의 역사 전체를 찾아보아도 전 무하다. 2014년 현재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떠한가?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조계종·선학원 갈등, 합의 정신으로 풀자

조계종이 선학원 정상화를 위해 종단적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11월 18일 200회 정기회에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선학원의 협의와 법적 대응을 함께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종단이 구성하려는 추진위원회는 총 150~200인으로 구성되는 종단적 기구다. 상임위원장은 총무원 총무부장인, 상임위원은 추진위원장이 추천할 11~15명으로 한다. 이들은 선학원에 대한 민행사 등 법적 대응부터 협의, 관련 자료 수집 및 세미나, 공청회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조계종이 선학원 갈등 해결을 위해 최대의 강수를 둔 것이다. 법인관리법 개정과 대각회를 특별교구로 지정한 것도 등록 의지가 분명한 법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선학원은 제2 정화운동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자신들이 조계종의 모태인 만큼 현 종단을 정화하겠다는 것이다.

11월 20일 열린 선학원 분원장 회의에서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현 갈등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조계종과 선학원 모두 불교 중흥을 위한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11월 17일 총본산 성역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선학원은 20일 '한국근대불교문화사관' 기공식이 개최됐다. 두 불사 모두 21세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은 분명하다. 서로 손을 맞잡고 힘이 되어줘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가톨릭은 서대문 서소문 공원과 여주 주 여사지를 자신들의 성지로 삼기 위해 전면적으로 나섰고, 행정 수도 세종시는 개신교의 교회와 넘쳐나고 있다. 집안 싸움으로 역량을 소모시키고 있는 때가 아닌 상황이다. 조계종과 선학원이 보여주고 있는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적 대응과 비방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문제를 해결하길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교계 복지 종사자 효율적 연수교육을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에 직원들 평균 근무기간이 4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사회복지사들, 3D업종에 필적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들은 직업인으로서 다른 무엇보다 봉사와 희생의 소명의식이 철저히 버릴 수가 없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무엇보다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처럼 지난 11월 6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산하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명상과 휴(休)'라는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참가자 1백여명이 1박 2일 동안 한국문화원수원에서 걷기 명상과 좌선체험 등을 하며 쉼의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이같은 정기 연수 프로그램은 1년에 4차례 정도 이뤄진다. 시설장, 실무책임자, 신입 등 대상별 연수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전체 시설 종사자들을 위

한 교육이 한 차례 더 있다. 산하 시설 직원 연수는 불교 복지인으로서 정체성과 소명의식 확립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데 있다.

타 종교 복지재단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재단 미션과 비전, 서비스, 실무교육 등을 최소 6개월에 걸쳐 진행한다. 중간마다 필기시험 혹은 실기형태로 테스트를 진행하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측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내년부터는 신입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니 기대가 된다. 사회복지 시설은 대부분 위탁시설로 타 복지재단 소속이 될 수도 있고 복지사 역시 이직이 잦다. 하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재단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져 이직을 방지할 수도 있다. 또한 복지담당자간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이다.

발언대

총본산 성역화는 불교중흥 위한 '불자 선언'



지현스님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추진위 총도감

조계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곳이다. 경복궁, 인사동, 북촌 등을 연계하는 문화벨트의 중심지역이다. 조계사는 수많은 시민과 외국인이 방문하는 명소이며 전통과 근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을 대표하는 곳이 되었다.

2012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조계사를 방문하는 외국인인 평일기준 600명, 주말 1,000여명으로 1년에 최대 26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조계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에게 조계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까? 새삼 궁금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살펴볼진대 모양과 내용을 살펴볼 때 부끄러운 것이 하나가 아니다.

한국사찰의 기본적인 전각도 구비되어 있지 않고 일주문 위치도 전통가람배치와는 맞지 않다. 외국인 등 방문객

에게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충실한가 자문할 때 아직 부족한 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통해 현대화된 한국불교를 번듯하게 세우고자 하며, 세 계인들이 웃고 행복을 나누는 대한민국 대표 명소로 일신하고자 한다.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불자들의 책무이며 사명이다. 문화는 조화로운을 통해 만들어진다. 전통과 현대,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일상적인 것과 특별한 것의 조화가 문화의 요소인 것이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대작불사는 이러한 문화적 요소에 국민의 바램, 사부대중의 오랜 염원을 담아 낼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정부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공간을 만들 것이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조계사 주변은 전통 건축술을 통해 열린마당을 확대한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다. 특히 성역화 사업 중의 하나인 10·

27법년 교육기념관은 현대 건축 기법을 통해 해원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근현대사에서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치유하는 시설로서 정서적·심리적 상처를 보듬어 주는 안락처가 될 것이다.

과거사를 성찰하는 이유는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현재와 미래의 지향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
해원·상생의 공간으로"**

가와 국민의 불신과 분열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며 화해와 상생의 기틀인 것이다. 조계종 총본산은 역사교육의 장으로써 한국근현대교사가 아닌 한국사 전체의 맥락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했던 숭고한 선승들의 호국정신을 다시금 알려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문화 교육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문화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시켜 나갈 것이다.

참고로 10.27법년이란 1980년 10월 27일 계엄군 및 경찰이 전국의 사암의 법당에 난입해 수많은 스님들을 연행, 고문한 국가에 의한 희대의 불교탄압 사건이다. 현재 국가 특별법에 의거 국무총리 산하 '10.27법년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업으로 조계사 주변에 기념교육관 건립 추진을 계획 중에 있다. 당시 작전명인 '45계획'이라 했는데 결자동 45번지 조계사를 칭했던 것으로 총본산 성역화 구역에 법년 교육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00년 전 사찰이 전무했던 4대문 안에 전국의 불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보태어 조계사가 시작 되었듯이 이번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불교중흥을 위한 제2의 불자선언이자 실천운동이다.

지난 11월 17일 불사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말씀하셨듯이 10년이라는 불사 기간동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1,700년 한국불교가 미래 100년, 세계인들을 향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길에 사부대중의 지혜와 손길이 함께 할 것이라 믿는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홍보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발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사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칠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
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고개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정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